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7.31.(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먼저, 금주 주요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현충원을 방문하여 헌화·분향하고 참배하는 것으로 장관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8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에서 최근에 인권동토대를 발간해서 한국을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선전매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발간했다는 책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북한 열병식이 끝났는데요. 중국·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서 외교적인 이런 행사를 한 반면에 노병대회 같은 몇몇 행사는 없었습니다. 북한 열병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한번 멘트를 해주십시오.

**<답변>** 이번 행사, 전체 행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5일부터 27일 간 3일 동안 열병식을 포함하여 10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정치행사보다 중국·러시아 대표단과의 친선 행사를 위주로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과시하는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병식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에서 보도된 대로 북한은 7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규탄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를 모색하기보다는 핵 개발과 대결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질문>** 27일까지 김정은의 정전 70년 행보가 1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28일엔가 중국 대표단을 단독 접견을 하고 연회를 또 베풀었잖

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8일까지, 28일 일정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양쪽을 한 게 무게중심이 확 쏠렸는데 28일의 일정을 보면 또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다시 김정은이 중국 대표단을 단독 접견한 일정 후에도 기존에 배포하셨던 총평,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더욱더 어떤 의전상의 예우가 더, 더 예우했다, 이런 평가에는 그래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통일부가 이 행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배포해드린 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끝>